

‘中風’ 맞은 여수산단... 지역경제 ‘적신호’

국내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여수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에서 화학 제품을 자체 생산하면서 국내 물량의 수입을 줄였고, 중동 등지에서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법인세가 줄고, 새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다.



중국서 저가 화학제품 생산 북미·중동은 거센 물량공세

LG화학·GS칼텍스 등 영업이익률 급감 경영 악화 여수 지방세 수입 크게 줄어 市, 투자환경 개선 총력전

◇장기 경기침체 직격탄=여수시 삼일면 일대의 여수 국가산단은 지난 1967년 호남정유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산업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석유화학단지 자리로 지켜왔다. 현재 여수산단은 정유·석유화학·비료·기계 등 주요 업종을 전문으로 한 278개사가 입주, 245곳이 본격 가동 중이다. 국내 총 생산량 기준 석유화학(연 366만t, 에틸렌 기준) 48%, 정유(하루 84만 배럴) 28%, 비료 32%(연 430만t)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여수산단 총 생산액은 98조 225억원에 수출 391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생산·수출액 증가와는 반대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폭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현 경영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핵심 항목이다. 통상 영업이익률이 최소 10% 이상 돼야 기업들이 공장 증설 등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지만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신규 투자가 쉽지 않다. 여수산단 주요기업인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 NCC 등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 기초시설인 나프타 분해시설을 갖춘 롯데케미칼은 2011년 대비 2012년 기준 영업이익이 무려 74.7%나 감소했고, GS칼텍스 73.8%, LG화학 32.2%, 여천 NCC가 38.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3년 영업이익률도 전년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도 아직까지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화학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경기침체와 요동치는 환율, 중국발 ‘신 차이나 쇼크’ 등을 꼽고 있다. 중국의 수요감소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신중심을 급격히 확대, 자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줄이고 있다. 여기에 북미와 중동지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물량공세로 국내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현재 나프타를 원료로 한 국내 에틸렌(석유화학 기초제품) 1t의 제조원가는 1000~1300달러 수준인데 반해 미국 셰일가스(모래와 진흙이 퇴적돼 형성된 셰일암층에 함유된 가스)는 400~600달러, 중동 천연가스는 200달러 선이다. 이처럼 북미와 중동지역이 낮은 원가로 에틸렌을 제조하면서 석유화학 추종물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여수산단 전체 매출은 늘었지만 주요 기업들은 중국발 핵폭탄을 맞았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주도권이 중동과 미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어서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직격탄=이처럼 여수산단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통상 여수산단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10% 정도가 지방세로 수납된다. 하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2년 984억원이던 지방세도 2013년 74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지방세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직결돼 있고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10~25%)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LG화학 경우 2012년 법인세 4110억원 지방세 152억원(여수공장)을 납부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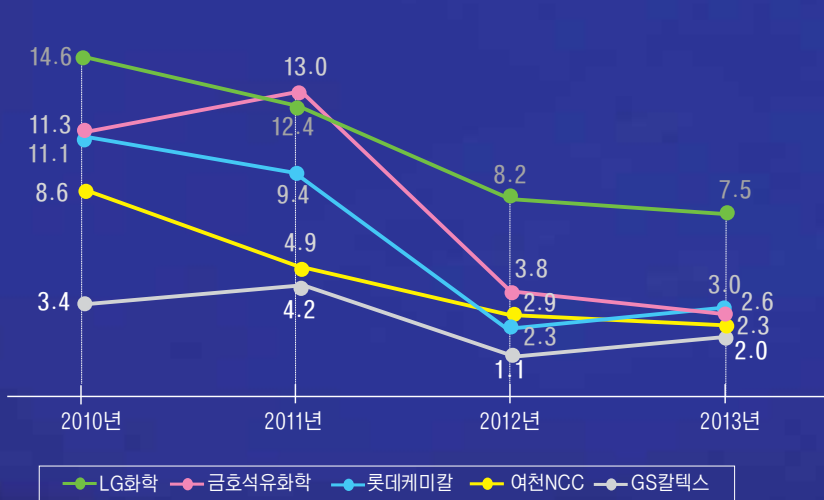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2013년 법인세 2204억원 지방세 95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법인세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지방세는 여수공장으로 30% 가까이 배분된다. 이는 지방세를 나누는데 고용인원과 총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국내 11곳의 공장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 여수산단 총 생산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기업 37곳의 총 고용인원 11만 938명(올해 6월말 기준) 중 여수·순천·광양 출신이 10만 68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수박에 얹다. 이들 기업이 어려워지면 지역의 전체적인 고용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여수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단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내년 말까지 여수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녹지해제 지역 부지 신청사건 6개사의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인허가를 해결할 계획이다. 시는 2조6000억원이 넘는 이들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면 수만명(연인원)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시원 기획경제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노력은 물론, 올해 70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산단 주요 기업 경영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LG화학	GS칼텍스	여천NCC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10년 매출	19,471,450	35,315,777	6,317,121	10,634,786	4,957,000
10년 영업이익	2,841,067	1,200,123	542,626	1,177,555	560,349
영업이익률(%)	14.6	3.4	8.6	11.1	11.3
11년 매출	22,675,593	46,456,382	7,521,171	15,699,440	6,457,354
11년 영업이익	2,818,758	1,948,999	365,411	1,470,101	839,049
영업이익률(%)	12.4	4.2	4.9	9.4	13.0
12년 매출	23,263,019	47,872,746	7,842,600	15,902,803	5,883,690
12년 영업이익	1,910,323	510,926	225,424	371,731	223,803
영업이익률(%)	8.2	1.1	2.9	2.3	3.8
13년 매출	23,143,612	45,659,771	7,692,248	16,438,935	5,132,132
13년 영업이익	1,743,044	900,080	176,515	487,423	134,229
영업이익률(%)	7.5	2.0	2.3	3.0	2.6

※ K-IFRS 연결기준(출처: DART)

■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



여수 국제해양포럼 성료... ‘여수 프로젝트’ 등 논의

‘2014 여수 국제 해양포럼’이 성료됐다. 여수 국제 해양포럼은 지난 2012년 열린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개발도상국들의 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이 공동 주최해 지난 23~24일 이틀간 박람회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여수 프로젝트와 함께 가는 희망의 세계해양’을 주제로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개회식에는 아노테 통(Anote Tong) 키리바시 대통령,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웬디 왓슨 라이트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사무총장 등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 해양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여수 지역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해양위기에 직면한 개발도

상국들을 지원하는 여수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포럼 둘째 날인 24일에는 국내외 저명한 해양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모여 ‘여수 프로젝트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열렸다. 패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여수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여수 프로젝트’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개최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해양수산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 해양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LG화학, 여수 석유화학고에 도서관·실습자재 기증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유재준)이 국내 유일 석유화학 마스터급인 여수 석유화학고에 도서관과 실습자재를 기증하는 등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21일 여수 석유화학고에서 1억원을 지원한 ‘희망 가득한 도서관’ 기증식을 갖고, 8000만원 상당의 설비도 전달했다. 여수 석유화학고는 이 도서관을 ‘송백 도서관’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날 기증한 여수 석유화학고 도서관에는 석유화학 관련 도서 뿐 아니라 다양한 책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LG화학의 ‘희망 가득한 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LG화학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 실현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억여원을 들여 2~3개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 기증해 온 사회공헌사업이다.

여수지역에만 모두 5억여 원을 들여 다섯 번째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8000만원 상당의 석유화학공정 분산제어 시스템(DCS) 설비를 기증했다. 석유화학고 관계자는 “분산제어 시스템은 공정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중앙 제어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설비로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또 이날 석유화학고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통해 우수한 지역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발판도 마련했다. 한편 LG화학은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람 LG’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여수 등 전국에서 다양한 청소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웅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창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성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